

“대기업 횡포, 이젠 물러설 곳 없다”

광주 SSM 추가 진출 저지 중소상인 움직임 거세

광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 업체에 맞서 상권 보호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사업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추가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공청회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맹점 방식으로 북구 동림동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주)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 중소상인 단체인 중소상인살

리기 광주네트워크는 7일 오후 2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달 중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를 방문해 대책요구서를 전달 할 계획이다.

또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가 S법인을 내세워 북구 삼각동에 대형마트 우회 입점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구 매곡

동 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입점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중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진출 시도가 잇따르자 광주시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추가 진출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유통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중소상인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 내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4곳,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편법 입점 논란이 일고 있는 SSM 가맹점은 남구 노대동 롯데슈퍼가 지난 6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북구 동림동 2곳, 가맹점 전환을 검토 중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치평·공암점까지 문을 열 경우 모두 5곳으로 늘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석선물용 와인 총집합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6일 지하 1층 매장에서는 추석선물용 해외 유명 와인들을 선보였다. 만화 ‘신의 물방울’로 유명해진 ‘사도 몽페라’를 비롯해 열대 과일의 풍미를 담은 ‘상파뉴 영 쥘르드’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제각각

지방은행 고객 10명중 9명 20%대 고금리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현금서비스 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경남·부산·제주·전북 은행 등 카드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회원 90% 이상이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카드사에서 회원의 과반수가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다.

그러나 카드사별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회원의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들 기준으로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실제로 20% 이상의 금리를 부

담하고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이 64.0%에 달했다. 그 외 10~20%의 금리를 부담한 회원이 31.7%, 10% 미만을 부담한 회원은 4.3%였다.

신한카드를 비롯한 전업계 카드사들은 20%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회원 비중이 평균 50~70%대에 달했다. 현대카드 58.8%, 하나SK카드 65.0%, 삼성카드 69.3%, 롯데카드 75.0% 등이었다.

은행 경영 카드사 중에는 KB와 기업은행은 고금리를 이용하는 회원이 적은 편이었다. 금리 20% 이상 부담 회원이 KB 52.7%, 기업은행 60.7%였다.

하지만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은 고금리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금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금리를 20% 이상 부담한 회원의 비중이 외환은행의 경우

84.2%, SC제일은행은 87.4%였고 씨티은행은 94.9%에 달했다.

지방은행은 더욱 심해 대구은행(79.0%)을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모두 90%를 넘었다.

광주은행 91.4%, 경남은행 93.34%, 부산은행 94.67%, 제주은행 97.16%, 전북은행 97.47% 등이었다.

카드사별로 고금리대에 몰려 있는 회원의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카드사들이 금리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마다 회원의 질(質)은 비슷함에도 특정 카드사에 고금리대 회원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은 해당 회사가 수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신금융협회에 구축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통계 정보찾기 이벤트

호남통계청 20일까지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대형)은 지역통계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호남 지역통계 정보찾기’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를 찾는 사람들 중 4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hnro)를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조사지원과 062-370-6352.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우산업 성장방안 모색

내일 화순서 심포지엄

농협사료 전남지사(지사장 윤종근)는 전남도,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1시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FTA 대비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주제는 ‘한우 산업 비용 절감대책 등 정책방향’, ‘최근 한우산업 동향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등이다.

행사에는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전문가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하고 싶은 여성 ‘취업 문’ 활짝

17일 광주 DJ센터서 취업·창업 박람회

광주지역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2010 광주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오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3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현장 채용관과 창업정보관, 취업서류 컨설팅관, 이미지클리닉관, 면접컨설팅관, 전문가 취업·창업 특강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행사로 펼쳐진다.

현장채용관에서는 채용계획이 있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5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사무, 사회복지 등 50여 개 기업은 현장

에 부스를 설치해 구직 여성과 즉석 면접을 실시, 직원을 채용한다. 직접 참여가 어려운 100여 개 업체는 채용 게시판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다.

창업정보관에서는 15개 업체가 참여해 창업 유망 업종과 소자본 창업이템, 창업절차,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네일아트, 메이크업, 제과제빵, 천연염색, 플로리스트 등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직업심리검사관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대한 검사와 함께 MBTI, 에니어그램, HTP 등 전문 검사기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서류 클리닉과 이미지 면접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탤런트 전원주씨가 출연해 ‘성공인생,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박람회 기간 중 지역 여성기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는 ‘여성기업인 제품 전시회’가 열리고 이색패션쇼, 전통혼례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김종효 광주시 일자리창출지원관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력단절 주부와 여성 구직자 등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백화점 상품권 매출 쑥쑥

경기 회복세 영향...추석 전까지 판매 늘 듯

경기 회복세를 타고 백화점들의 상품권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상품권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의 상품권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품권 패키지 매출도 3% 증가했다.

백화점은 추석용으로 준비한 상품권 물량 중 17% 가량이 이미 판매됐으며 추석을 2주일 가량 앞둔 이번 주부터 상품권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 매출 증가에 대해 “기업들이 직원 선물용으로 상품권 구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통상 추석 2주 전부터 상품권이 집중적으로 팔리는 추세로 볼 때 이번 주 상품권 판매동향을 보면 올해 추석 경기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계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계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법규공관) 삼일로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세종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현점(구.사민회관)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천로)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일2001) 아산점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테크) 03-1336-103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사면점(사면로)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05-1016-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테크) 05-26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097-6060 전주점(구.동명극장) 05-745-9870 창원점(한마음빌딩 뒤) 0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테크) 05-3425-4440 삼척점(삼척테크) 05-3426-1511 남양주점(아카데믹) 05-3425-7575 경북 포항점(제1차)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성)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85-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제1차상점(구. 06-752-8845 전북 전주점(신복로) 06-2825-5728 군산점(구.서양문) 06-3449-0198 익산점(북부시장) 06-3839-5900 남원점(시장4거리) 06-3632-2626 대전 대전점(대명) 04-2254-5110 대전점(충주로) 04-2222-3393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울산 현점(현안역) 04-1653-2888 광주점(광주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캐피탈) 03-825-1177-8 충주점(삼천리) 04-3852-1414 강원 정선점(죽전2거리) 03-8647-0588 춘천점(밀호광장)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랑로) 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정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계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청별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북문광장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계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